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손 은 령[†]

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과정을 진로장벽 변인이 잘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장벽들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학년, 전공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진로결정수준, 내외 통제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895명의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검사, 진로결정수준검사, 내외 통제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대학생이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정도는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내외통제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하지만, 학년 및 전공과 여자대학생이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정도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내적 통제경향을 보이는 여자대학생집단이 외적 통제경향을 보이는 여자대학생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여자대학생 집단이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여자대학생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을 설명하는데 가장 기여하고 있는 변인은 진로결정수준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한 후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진로장벽, 내외 통제성, 진로결정수준, 여자대학생, 진로상담

손은령은 전주대학교 교양학부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손 은 령, (301-150) 대전시 중구 태평동 137번지,
전화 : 042-331-5975 E-mail : id1358@hananet.net

진로장벽(career barriers) 변인은 여성의 진로선택 및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심리적 요인과 외적,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구인으로 최근 들어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직업 세계의 변화, 경제환경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포함한 커다란 틀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진로의사결정이나 진로선택과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인지적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장벽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식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진로상담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외적 진로장벽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탐색해나감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진로준비 및 선택과정을 원조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진로상의 장벽들이 개인의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IMF 구제금융에서 졸업했다고는 하지만 청년 실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청년 실업률은 10.6%를 넘어서고 있다(2002년도 1월 11일자 조선일보). 이러한 경제현실은 외적·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진로결정 및 선택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며, 기회구조가 진로선택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를 제한한다는 Lent, Brown과 Hackett(1994)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기존의 진로상담 연구들은 심리적 변인들과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

에 따라 진로상담도 비슷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손은령, 2001). 진로상담 및 진로행동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여실히 드러난다. 진로상담 및 직업 상담과 관련된 학위 논문의 주제들을 살펴본 연구(김계현, 2001)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환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외적 장벽이나 환경적 진로장벽 등과 진로선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로선택이나 결정과정에서 개인·심리적 변인의 역할만을 주로 강조할 경우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적 구속과는 무관한 존재이며, 진로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야기할 수 있다(Brown & Lent, 1996). 이는 결과적으로 '심리적 환원주의'의 오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김계현, 1994). 그러므로, Lent, Brown과 Hackett(2000)은 기존의 진로연구들이 개인변인, 배경 변인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으므로, 이제는 환경변인의 영향에 대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상담 연구자들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 제약이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상담과정에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지각의 현실성과 왜곡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중요한 상담 과정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영향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Lent et al., 2000), 여성, 특히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단계(school to work stage)에 놓여있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양상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 여자대학생이 지각

한 진로장벽의 특징을 살펴보고, 여자대학생 진로행동 연구 및 진로 상담 실체에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자의 목적이다.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라 지칭한다. 즉, 진로장벽이란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 예를 들어, 취업·진학·승진·직업의 지속·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직무 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 연구자들이 이 변인에 관심을 가진 초기부터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Crites(1969)는 직장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이라 칭하였으며, ‘장벽(barriers)’(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지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s)’(Shuttleworth, 1992), ‘진로와 관련된 장벽(career-related barriers)’(Luzzo, 1997)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자들도 있다. 그러나 Swanson과 Tokar(1991)가 진로장벽검사(Career Barriers Inventory: 이하 CBI)를 개발하고, 이후 관련연구들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최근에는 점차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기대-유인가 모델이나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선택 및 진로실행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Vroom의 기대-유인가 모델(Expectancy-Valence Model)에서는 기대와 유인가에 따라 개인의 행동 경향이 달라지게 되며, 개인이 특정 분야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Vroom, 1964). 여기서 유인가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정서적 지향성”이라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호성을 뜻한다. 유

인가는 결과가 제공하는 만족과는 다른 것으로서(Herr & Cramer, 1996),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긍정적인 유인가 만으로는 선택이나 행동이 촉진되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가 달성될 거라는 믿음 즉, 기대가 수반되어야만 선택이나 행동이 실행될 수 있다. 기대란 선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개인은 결과에 대한 유인가와 그 직업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에 기반을 두고 결정을 하게 되며, 바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직업적 선호 즉, 유인가가 맞물려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기대란 직업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간에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직업 선택은 직업과 관련된 장벽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rown, Eisenberg, & Sawilowsky, 1997). Strickel과 Bonett(1991)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대학생이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직업과 가정의 책임문제를 조화시킬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아동 양육과 가사 책임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가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O'Brien과 Fassinger(1993)의 주장도 기대-유인가 모델의 관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도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개인 변인들과 함께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해주는 개인 외적(예를 들어, 맥락적) 요인들을 강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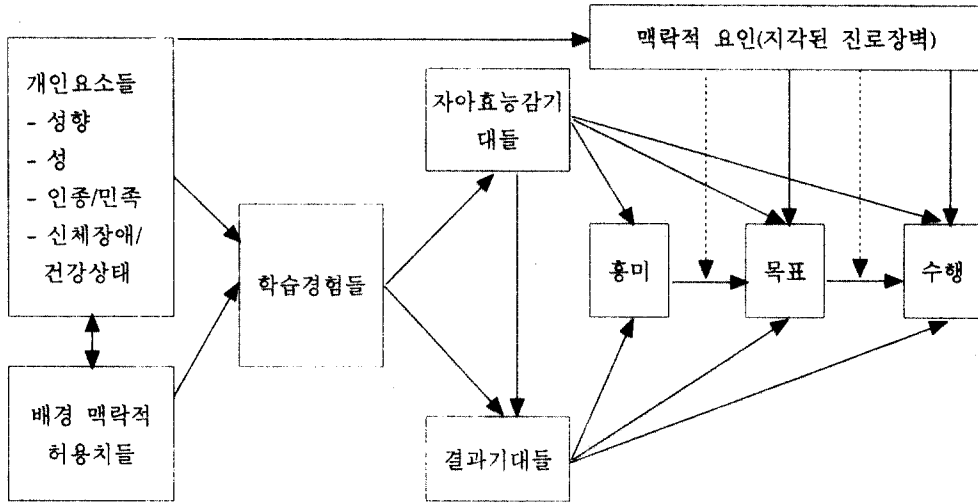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선택행동에 대한 사회인지적 영향(Lent, Brown, & Hackett, 1994)

있다. 이 이론에서는 진로선택행동에 미치는 사회인지적 영향을 그림 1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지각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Lent et al., 1994).

그림 1을 보면 개인 요소들(성향, 성, 인종/민족, 신체장애/건강상태)은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맥락적 요인은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 목표, 진로수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한다. Lent 등(1994)은 “흥미-목표 일치상의 성 차는 기회 구조, 지지 체제, 사회화 과정상의 차이 뿐 아니라 지각된 진로장벽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p. 108)”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진로와 관련된 장벽의 존재, 또는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진로행동-예를 들면, 진로 목표의 선정이나 진로 선택, 진로동기-에 변화가 야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진로상담자가 내담자의 흥미를 분석하고, 자아 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 등을 탐색하며, 직업적 대안들을 검토해 나아갈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개인, 심리적인 관점에서만 실행해 나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직업적 흥미가 직업선택으로 그리고 직업 선택이 실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각된 진로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적 환경 요인들(예를 들어, 비협조적인 지원체계, 사회구조적인 차별 등)이 자신의 노력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직업 흥미가 진로 목표로, 그리고 진로목표가 진로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Lent et al., 2000). 따라서 여성의 경우, 비전통적인 직업 분야에 대한 자아 효능감 기대가 높더라도, 격려의 부족이나 가정-진로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기대되거나 예상되면 그에 대한 선택을 망설이거나 거부하게 되며,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들은 일종의 진로장벽이 된다는 점을 Lent 등(2000)은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진로이론들은 여성의 능력이 신장되고, 직업에의 참여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비

전통적인 직업에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 상황과 여성이 실제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 직업적으로 낮은 성취(underachievement) 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직업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진로장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물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그 결과들도 일관되지 않다. 지금까지 진로장벽과 관련해서 주로 연구가 되어진 변인은 통제 의 소재(Luzzo, 1996),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Swanson & Daniels, 1994), 진로 미결정과 직업적 정체감(Swanson & Daniels, 1995a, 1995b) 등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wanson, Daniels와 Tokar (1996)의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및 직업 정체성 변인과 진로장벽 척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uttleworth(1992)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지각이 진로선택의 전통성과 관련될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이는 검증되지 못하였으며,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수록 직업 선택에 대한 결정수준이 더 낮을 것이라는 가정도 검증되지 못하였다.

한편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부정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Lent, Brown, Brenner, Chopra, Davis, Talleyrand, & Suthakaran, 2001; Luzzo & Jenkins, 1996; Luzzo, 1997). Luzzo와 Jenkins(1996)의 연구에서는 멕시코계 미국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수와 진로결정 통제감 간에 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시행된 Luzzo (199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미래에 예상되는 진로장벽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의사결정 자아 효능감 기대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Lent 등(200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직접적으로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개인의

결과기대 및 자아 효능감 기대를 매개로 하여 진로선택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소수의 연구결과만으로 지각된 진로장벽과 관련변인의 관련성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감이 있기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은 진로장벽 연구의 후속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손은령, 2000; Lent, et al., 2000; Swanson & Woitke, 1997). 첫째, 진로발달 단계 및 진로진전과정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 진로 목표나 진로포부의 실현을 방해하는 진로장벽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장벽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결과들과 결합하고, 후속적인 연구가설들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 셋째, 진로장벽 지각에 있어서의 집단 내 차이 또는 개인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진로장벽의 지각과 관련될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변인들 예를 들어 진로결정수준, 진로선택의 전통성, 진로 의사결정 자아 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양식 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각된 진로장벽에 대한 대처전략,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제안 중 진로장벽의 지각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우리 나라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과 개인변인(전공, 학년) 및 심리적 변인(내외 통제성, 진로결정수준)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여자대학생의 진로선택 및 진로의사결정 상담에 유용한 기초적인 정보를 찾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심리적 변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여자대학생의 내외 통제성에 따라 진로 장벽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진로 장벽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심리적 변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1년 3월 한달 동안 서울과 지방의 8개 대학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 8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심리학관련 교양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표집시 학년과 전공이 고르게 표집되도록 배려하였다. 평균 연령은 20.32세(SD=1.79)였다.

연구도구

진로장벽의 지각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내용과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손은령(2001)이 개발한 여자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를 사용하였다. 여자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는 7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과 그 방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손은령(2001)이 보고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6이고, 반분신뢰도는 .90이다.

내외통제성

내외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otter(1966)가 개발한 내외통제성 검사(Rott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차재호(1973)가 번안한 15문항으로 구성된 내외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응답자의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성의 문항에 1점을 주고 외적 통제성의 문항에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성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김현옥(1989)이 보고한 내적일관성 신뢰도계수는 .67이고, 반분신뢰도는 .92의 신뢰도를 보였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r(1976)가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이하 CDS)를 김봉환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Osipow 등(197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계수가 .90으로 나타났으며,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CDS는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두 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개 문항은 교육과 진로 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마지막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절차

각 대학의 교양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검사 실시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허락을 얻은 이후에 모든 검사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진로장벽검사, 진로결정검사, 내외 통제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실시에는 약 20-30분이 걸렸으며, 모든 검사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개인 변인(학년, 전공) 및 심리적 변인(진로결정수준, 내외통제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개별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학년 및 전공에 따른 지각된 진로장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내외 통제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외 통제성 점수의 상위 25%를 내적 통제집단, 중간 50%를 중간집단, 하위 25%를 외적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세 집단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점수를 비교하는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의 개별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결정수준 검사점수의 상위 25%를 진로결정집단, 중간 50%를 중간집단, 하위 25%를 진로 미결정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세 집단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점수를 비교하는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의 개별비교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변인, 심리적 변인이 진로장벽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 비교하기 위하여 학년, 전공, 내외 통제성, 진로결정수준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지각된 진로장벽을 기준 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개인·심리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상관

지각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학년, 전공, 진로결정수준, 내외통제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학년 및 전공은 지각된 진로장벽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지만 진로결정수준($r = -.39, p < .001$)과 내외 통제성($r = -.25, p < .001$)은 지각된 진로장벽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각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간의 상관계수

지각된 진로장벽	학년	전공	진로 결정수준	내외 통제성
상관계수	.04	-.03	-.39***	-.25***

주. *** $p < .001$

개인변인(학년, 전공)과 지각된 진로장벽

학년에 따라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검사 점수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좀더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 학년별 진로장벽검사점수의 일원변량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1학년	222	145.72	59.26	2.395
2학년	262	140.45	52.71	
3학년	225	140.65	53.16	
4학년	186	152.44	54.02	

표 3. 전공별 진로장벽검사점수의 일원변량분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인문사회계열	352	147.63	54.88	1.378
이공계열	321	140.60	53.09	
사범계열	222	144.38	57.89	

전공에 따라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검사 점수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이공계열과 사범계열에 비해 진로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외통제성과 지각된 진로장벽

내외통제성에 따라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진로장벽 검사점수

의 총점은 내외통제성 점수에 따라 내적 통제집단, 중간집단, 외적 통제집단별로 구분된 세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를 후속적으로 Scheffe검정한 결과 내적 통제집단($M = 159.09, SD = 51.61$)은 중간집단($M = 140.90, SD = 53.19$)과 외적 통제집단($M = 130.96, SD = 56.05$)에 비해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진로결정수준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검사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진로장벽 검사점수의 총점은 진로결정수준검사점수에 따라 진로결정집단, 중간집단, 진로미결정집단으로 구분된 세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후속적으로 Scheffe검정한 결과 진로 결정집단($M = 116.19, SD$

표 4. 내외통제성에 따른 진로장벽검사점수의 일원변량분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비교
내적 통제집단	334	159.09	51.61	22.674***	외적 > 중간 > 내적
중간집단	256	140.90	53.19		
외적 통제집단	305	130.96	56.05		

주. *** $p < .001$

표 5. 진로결정집단별 진로장벽검사점수의 일원 변량분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Scheffe비교
진로결정집단	296	116.19	55.73	91.18***	진로미결정 > 중간 > 진로결정
중간집단	298	144.14	46.44		
진로 미결정집단	304	171.55	47.69		

주. *** $p < .001$

= 55.73)은 중간집단($M = 144.14, SD = 46.44$), 진로 미결정집단($M = 116.19, SD = 55.73$)에 비해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지각된 진로장벽의 주된 예언 변인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정도가 학년, 전공과 같은 개인변인과 내외 통제성,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장벽 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학년, 전공, 진로결정수준, 그리고 내외통제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수준과 내외통제성이었으며, 이 두 변인이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변량의 1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 중 진로결정수준은 전체 변량의 15.4%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F = 161.025, p < .001$), 내외통제성은 전체 변량의 2.7%를 추가해서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 = 98.295, p < .001$).

표 6. 진로장벽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적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변 인	R	R ²	β	F
진로결정	.393	.154	-.393	162.025***
내외 통제의 소재	.426	.181	-.169	98.295***

주.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여성의 진로행동을 설명해주는 중요 설명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개인·심리적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 특히 여자대학생의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중심으로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연구와 상담 실제에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년 및 전공과 같은 개인적 변인은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진로결정수준 및 내외 통제성은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진로이론들 예를 들면, Vroom의 기대-유인가 이론이나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 이론 및 Lent 등의 사회인지이론의 가정 즉,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과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및 선택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Lent 등(2001)의 연구 결과를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에 대한 기존 이론의 가정들에 타당성을 더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Shuttlesworth(1992)와 Swanson 등(1996)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경우 남자대학생에 비해 진로결정수준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상관계수가 더 낮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미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구에 사용된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Swanson 등(1996)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제작된 남녀 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가 사용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면접, 설문, 문헌연구 등을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제작된 여자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손은령, 2001)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여자대학생이 처한 진로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상의 차이로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간문화적 반복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내외 통제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를 보면, 내적 통제집단이 외적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을 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 통제집단에 따라 직업적 장벽을 지각하는 수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 Luzzo와 Hutcherson(199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적 통제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지는 강화를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다른 힘의 통제하에 있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외부의 힘이나, 행운, 우연, 운명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외적 통제집단이 진로장벽을 더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가 더 타당할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개인·심리적 변인들을 더 투입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여자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진로결정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역으로는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하는 것이 진로미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본 연구가 상관연구의 틀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진로미결정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진로 정체감이나 진로성숙, 불안 등의 변인 외에 지각된 진로장벽 변인이 진로미결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 동안 진로상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도외시되어 왔던 진로장벽변인에 주목함으로써, 진로상담 연구 및 실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진로결정수준이 지각된 진로장벽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변인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로 연구되어 왔던 심리적 변인이나 특성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사회적, 환경적 맥락 및 진로장벽 등을 연구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셋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들(고향자, 1992; 임용자, 1994; 이현주, 1998)이 주로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과정에서의 개인·심리적 변인의 역할에만 주목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 외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진로장벽의 역할과 개인·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진로상담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하였고 여성 진로상담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 및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상관

연구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들을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개인·심리적 변인의 선정에 있어서 진로장벽의 지각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들 예를 들면, 자아 효능감, 성 역할 관념, 불안 등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지각된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들과의 관계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1학기의 개강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1학년 응답자의 경우 실제 본인의 진로결정과 전공결정을 구분하기 힘들어 응답에 혼선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계현 (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142-170.
- 김계현 편저 (2001). 상담심리학연구 II - 집단·진로·학업·가족상담 -. 서울: 학지사.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욱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은령 (2000). 진로 장벽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충남대 학생생활연구소, 28, 81-98.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주 (1998).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용자 (1994). 성 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차재호 (1973). 내·외통제척도 작성, 연구노우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19), 263-271.
-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
- Brown, M. T., Eisenberg, A. I., & Sawilowsky, S. S. (1997). Traditionality and the discriminating effect of expectations of occupational success and occupational values for women within math-oriented fiel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418-431.
- Crites, J. O. (1969).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67-110).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err, E. L., & Cramer, S. 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5th Eds.).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 Luzzo, D. A. (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Luzzo, D. A., & Hutcheson, K. G. (1996). Casual attribution and sex difference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occupational barri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124-130.
- Luzzo, D. A., &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1), 1-8.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Shuttleworth, C. L. (1992).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Stickel, S. A., & Bonett, R. M. (1991).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Combining a career with home and famil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2, 297-301.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4).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a).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to self esteem,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b).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Tokar, D. A. (199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 Swanson, J. L.,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preta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원고접수일 : 2002. 3.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21
게재결정일 : 2002. 6. 14

The Relationship of Personal · Psychological Variables and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Women Student

Eun-Ryung Sohn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women student and personal · psychological variables. In this study the personal variable means grade and major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s means career decision level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Th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locus of control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hereas grade and major didn'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the locus of control was compared with the degree of career barriers perception,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group showed lower level of career barriers perception than the external locus of control. Third, the career decision level was compared with the degree of career barriers perception, the group of low decision level showed lower level of career barriers perception than the group of high decision level.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decision level was the best contributing factor to explain the perception of career barrie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mplication of career counseling of counseling women students was widely discussed with relation to the previous researches and the limitations of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areer barrier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career decision level,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counseling